



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에 비로소 회복되고 견고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는 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이 원하는 질서, 보다 완전한 정의를 인간 사이에 꽃피게 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성 요한 23세 교황 회칙, 『지상의 평화』 참조).

오늘날의 세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화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보복이 아닌 꾸준한 대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호 존중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목과 갈등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현대의 주변 나라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편을 갈라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지상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내외 현안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교

황님께서는 “정치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고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 없이 노력하고 또 성모님의 전구와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안에 한 가족임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자신보다는 이웃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주님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2019년 8월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유영수경